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 김춘옥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난이, 국민학교 사학년 땀디, 옛날 이 칠판닭이를 만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얘길 했어. 이젠 칠판딱이를 이젠 양림이하고 나하고 진기하고 서이가 이젠, 강맹이네 집게 저 어디 군선이네 집 올레, 이제 강 멘들안, 이젠 아이들 곁으민 요망정 그디 잣당 올 거주게. 그디 구신 많이 난덴 허난 이제 아이 막 어멍한테 욱들어지 카부덴 새벽 훈 두시 아니든 세 시쯤 됐어. 막 오느렌 허난 우리 그 이쪽에 우리 셋아지만 골목에 그 청자네 감낭 잇잖아 그디 아 잇인디양 어떤 조그만훈 할망이 나타난 거라. 게난 우리 서이가 다.

“아이고 할망왔저. 아이고 저 할망이랑 우리 곁이 가게.”

무서우난이 경 행 이젠이 영 쳐다봐지는 순간에 완전 기신세가 된 게 한 층은 검고 한 층은 히곡 행 딱 그 딱 담에 걸청 이렇게나 산.

“아이고 기신세 낮저.”

행, 서이가 겁난 막 돌아오는데 너무 지치난 겁나난 신이 신도 벗언 돌음도 못 돈더라. 힘이 버천 게난 그 앞가름에 나왕 보난이 그때 스물사흘날이라. 스물사흘날 달이 비천게 경헌디 진기하고 양림인 오곳 들어가 불곡 난 헉헉 막 뛰어 강 막 지천 들어강 낭 아래 강 탁 앓안 헉헉 허난 이젠 우리 어머니가 나왕

“아이고 이 미친 년 멧 신디 이 밤이 왔젠.”

허멍 막 난리데쓰는 거라.

“어멍 욱허카부덴 왔젠.”

허멍 야 땀으로 몸 곰앙이 삼사일 아판 누원. 나. 삼사일 아판 누원. 건디 기신세가이, 바로 그거란 생이라. 기신세가 처음엔 작다가 내중엔 커. 그냥 막 팔 벌기더라게. 아이고 막.

[조사자] 경 행 어떻 행 나안마씨?

[제보자] 아니 옆길이란 막 뛰어완.

[조사자] 아니 아파난 다음에 어떻 행 나앗수과?

[제보자] 아파네. 심방할망 빌러네. 그 세밧디할망 빌령 뵈세헛어 뵈세헛어. 심방할머니 빌어다가 녀을 디려준 거라. 잡구신 붙엇이카부덴. 경행 낮앗어. 나홀로 낮안. 나홀. 아파네.

[조사자] 심방할망 이름 뭐마씨?

[제보자] 그 할망 죽어불엇어. 저 세밧디할망이렌 현 할망이 잇어.

[조사자] 세밧디할망? 여기 종달리.

[제보자] 응. 여기 종달리 살당 죽엇어.

• 핵심어 : 종달리, 올레, 기신세, 할망, 심방, 학교, 세밧디할망